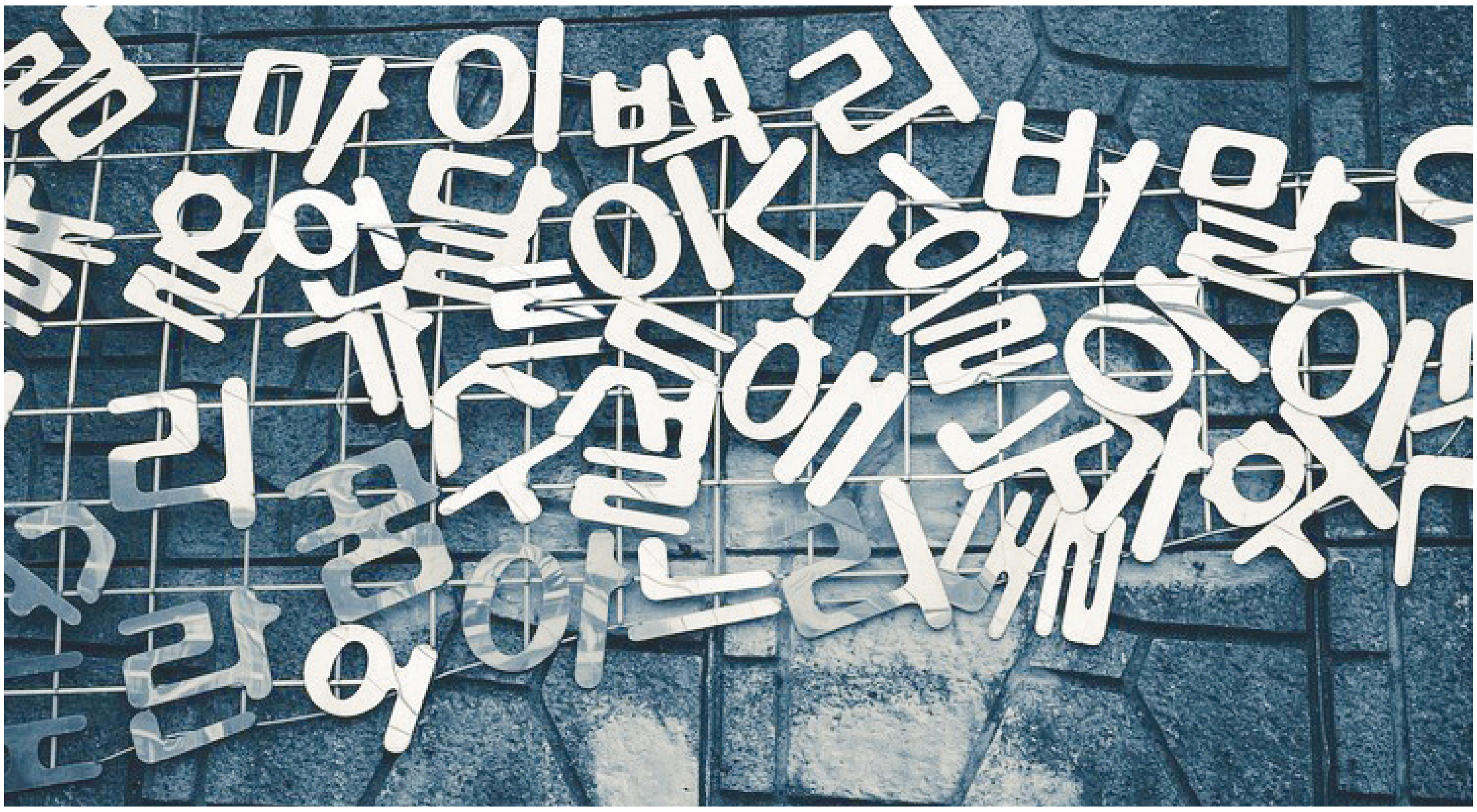
‘매다[結]’와 ‘쓰다[用]’



김 양 진
교수 · 국어국문학

‘매다[結]’와 ‘쓰다[用]’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이지만 ‘맵시’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나의 단어 안에서 공존하게 된 말이다.

‘맵시’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라는 말로 한자어 ‘태(態, 모양 태)’의 유의어인데 “단정하고 맵시 있는 옷차림”, “맵시가 난다”, “맵시를 부린다”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는 말이다. ‘맵시’의 어원적 단어 구성은 ‘끈이나 줄 따위로 동이고 묶다’라는 뜻의 ‘매다’의 어간 ‘매-’에 ‘쓰다’의 옛말인 ‘ᄡᅳ-(用)’ 그리고 명사를 만드는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즉 ‘매-+ᄡᅳ-+-이’가 ‘매ᄡᅴ → 맵 → 맵시’로 바뀐 말이다. 발음은 [맵씨]이지만 쓸 때는 ‘맵시’로 쓴다. 우리말 표기법에서, 한 단어 안에서 ‘ㄱ, ㄷ, ㅂ’ 발음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ㄲ, ㄸ, ㅃ, ㅆ, ㅉ’로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이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국고[국꼬], 묻지[묻찌], 잡다[잡따] 등)

‘맵시’와 관련한 말로 ‘매무시’, ‘매무새’가 있다. “옷을 입고 나서 옷고름을 매거나 옷 입은 모양새를 매만지는 뒷마무리”를 ‘매무시’라고 한다. 이 ‘매무시’는 ‘매무새’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어 그 구별이 쉽지 않다. ‘매무시’는 “끈이나 줄 따위로 동이고 묶어서, 옷을 입거나 가다듬는 행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데 ‘매무새’는 “끈이나 줄 따위로 동이고 묶어서, 옷을 입고 난 뒤의 모양새”를 나타낸다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무시’는 ‘옷을 가다듬는 동작’으로서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 옷을 입은 모습 그 자체의 매력을 말할 때는 ‘매무시’가 아니라 ‘매무새’를 써야 하는 것이다. “매무시를 가다듬다”와 “매무새를 가다듬다”는 모두 허용되지만 “우아한 매무시”보다는 “우아한 매무새”가 더 자연스러운 이유이다.

‘맵시’는 ‘매뭇-’에서 온 ‘매무시’와 그 맥락적 의미는 유사하지만 ‘매무시’가 좀더 옷을 가다듬는 동작 지향적이라면 ‘맵시’는 옷을 가다듬고 난 결과 지향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용례로 보면 ‘맵시 있는 옷차림’, ‘매무시를 바르게 하다’에서처럼 ‘맵시’는 명사 지향적 의미를 가졌고 ‘매무시’는 동사 지향적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도 있다.

> ‘맵시’ 라는 단어 안에서 묶인 ‘매다’ 와 ‘쓰다’ 의 쓰임새를 찾아 유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말의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만나게 된다.

‘매무시’는 ‘매-[結]’와 ‘뭇-[束]’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말 그대로 ‘매고 묶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매-[結]’는 “끈이나 줄 따위로 동이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고, ‘뭇-[束]’은 본래 ‘뭈-’에서 온 말로 ‘묶다’의 어원이 되는 말이다. ‘뭈다’의 작은말은 ‘뭓다’였는데 예전에는 동사 어간이 바로 명사로 쓰이는 일이 많아서 ‘뭈-’은 ‘뭇’으로 ‘뭓-’은 ‘뭇’으로 사용되었었다. 오늘날 ‘신’과 ‘신다’, ‘띠’와 ‘띠다’, ‘빗’과 ‘빗다’의 관계와 같은데 ‘뭇’은 ‘묶음으로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뭇’은 여럿으로 나누어 묶음으로 가지는 각각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남겨져 있다. ‘뭇’은 장작이나 채소, 생선 따위 묶음으로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데 특히 생선의 경우 ‘열 마리’를 한 뭇으로 세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맵시’처럼 단어 안에 ‘ᄡᅳ-(用)’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말 중에, ‘솜씨’가 있다. “손을 놀려 어떤 일을 하는 재주”를 ‘솜씨’라고 하는데 이 ‘솜씨’는 본래 ‘손ᄡᅵ’에서 온 말이다. ‘손ᄡᅵ’는 다시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손(手)+ᄡᅳ-(用)+-이(명사 파생 접미사)’의 구성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말이 ‘손ᄡᅴ → 솜ᄡᅴ → 솜씨’의 변화를 겪어 현대 국어에 ‘솜씨’로 남겨진 것이다. ‘손ᄡᅴ → 솜ᄡᅴ → 솜씨’의 변화는 ‘손’의 ‘ㄴ’이 ‘ᄡᅳ-’의 ‘ㅂ’에 자음 동화되어 ‘ㅁ’으로 바뀌어 ‘솜’으로 귄 뒤 ‘쓰는 일’이라는 뜻의 ‘ᄡᅴ’가 ‘씨’로 남겨진 것이다. 말 그대로 ‘손을 써서 하는 일 혹은 그러한 재주’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ᄡᅳ-(用)’가 들어간 또 다른 말로 ‘몹시’를 들 수 있다. ‘몹시’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 ‘못’에 ‘ᄡᅳ-(用)+-이(부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한 말인데, ‘못+ᄡᅳ-+-이 → 모ᄡᅴ’의 구성에서 ‘모ᄡᅴ → 몹싀 → 몹시’를 거쳐 ‘몹시’로 남겨진 말이다. 발음은 [몹씨]이다. 본래 ‘(사람의 성품이나 사물의 됨됨이가) 못 쓰게’ 된 데에 사용되던 말이었는데 점차 ‘심하다’는 뜻을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더할 수 없이 심하게’의 강조적 용법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못ᄡᅳ-’가 관형사형으로 남겨진 말이 ‘몹쓸’인데 그 의미는 주로 사람의 성정이나 일의 상황이 ‘못 쓰게 되었다’는 데서 ‘악독하고 고약한’의 뜻으로 남게 된 것이다. 주요 용법은 사람에 쓸 때는 ‘몹쓸 놈’이나 ‘몹쓸 년’, ‘몹쓸 것’이나 ‘몹쓸 사람’으로 쓰고 일이나 사건에 쓸 때는 ‘몹쓸 짓’이나 ‘몹쓸 집착’, ‘몹쓸 관계’. ‘몹쓸 습관’ 혹은 ‘몹쓸 병’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다. 최근에는 ‘몹쓸 사랑’이나 ‘몹쓸 동경’, ‘몹쓸 사회’ 같은 용법으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이미 ‘심한’의 의미를 얻어 ‘몹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씨, 말씨, 몸씨, 바람씨’ 등에서의 ‘씨’도 ‘ᄡᅳ-+-이 → ᄡᅴ’에서 온 말이다. ‘마음씨’는 ‘마음을 쓰는 일’ 즉 ‘마음의 씀씀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말씨’는 ‘말을 쓰는 일’ 즉 ‘말의 씀씀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몸씨’는 ‘몸맵시’와 같은 뜻으로 ‘몸을 보기 좋게 매만진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람씨’는 ‘바람이 불어오는 모양’ 혹은 ‘바람이 불어오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시경 선생이 만든 문법 용어 가운데 품사를 나타내는 ‘씨’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ᄡᅳ다’와 관련된 말이다. ‘씨’는 우리말에서 품사(part of speech)를 나타내는 고유어 개념어이다. 주시경 선생은 ‘이름으로 쓰는 일, 셈으로 쓰는 일, 움직임에 쓰는 일, 그림에 쓰는 일’ 등을 품사로 바꾸어 각각 ‘이름씨(명사), 셈씨(수사), 움직씨(동사), 그림씨(형용사)’ 등으로 개념어화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이름씨(대명사), 토씨(조사), 어떤씨/언씨/매김씨(관형사), 어찌씨/억씨(부사), 느낌씨/늑씨(감탄사) 등에서의 ‘씨’에서도 확인이 된다. 모두 어원적으로는 “ᄡᅳ-+-이 → ᄡᅴ → 씌 → 씨’의 발달을 거친 것이다.

이와 같이 ‘맵시’라는 단어 안에서 묶인 ‘매다’와 ‘쓰다’의 쓰임새를 찾아 이리저리 유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말의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겹겹이 만나게 된다. 참 맵시 있는 우리말이다.